

음은 피초 분간이 업서 분々하다가 필경 세닷고 황망중 충달이 군스를
 지휘하여 평구로 향하니 모다 저의 북병뿐이오 명진장졸은 부지거쳐라
 홀일업서 약간군스를 거느리고 회정하다가 운곡에 이르니 원수의 군스
 유진하였던 자취가 있노지라 거기서 쥬져라가 백운산 동편을 바라보고
 횡항더니 원수의 북병이 이러나 적장 충달과 적병을 에워싸고 고각함성
 이 진동하며 장원수—을흔손에 떨되들고 왼손에 참스금을들고 룡총
 마를빨니모라크게 웨여글으되 적장 충달이 이제도 죽은입에 감히 큰
 말노영웅을 희롱할가하며 풍진이 요란하고 참스금이 번쩍항더니 충달의
 머리갈빛을쫓츠말아리에 내려지노지라 원수—창뭇헤 썩여들고 군스
 를지축하여 우진강에 다스라한티영의 북병을맛나 또호 동섬셔홀홀다
 가티영의 머리를버혀들고성중에 달너들어 선우를 엄살하니 이때 임
 의야심하였는지라 선우와 거란티장이 겁혔다가 진중이 요란호를보고

충달이 희운을잡아오는가하고 숨혀보니 뜻밖게 명진장졸이 드러와 군
 스를태반이나 죽였는지라 선우—황급하여 거란티로 점전호되 거란티
 혼미하여 잊지호출 모르다가 정신을 진정하고 응접호거늘 원수—말을
 처치 죄총우돌으며 남으로향하다가 북장을 버히고셔으로가는듯동장
 을 버히니 선우의 군중이 대란하여 장수는 군스를 아지못하고 군스는
 장슈를아지못하여셔로 지쳐 죽었는지라 원수—충달의 머리를들고크
 게 웨여글으되 충달의머리를 임의 버혔스니 반적선우와 적장 거란티는
 썰니 목을늘여 갈을밧으라고지쳐 드러가며 참스금밧 나논곳에 적장
 의머리떠러지노지라 다갈뭇헤 썩여들고 승전고를 울니며 본진으로도
 라오니동방이아주 붉지아니호얏더라 선우—진세를 바라보니 거란티
 도 죽었는지라 대경실석하여 당치못호출을알고 남은군스 슈천을거느리
 고남성문을 열고 도망호거늘 원수—다시 군스를 정제하고 선우를 쫓

츠가니 슈일만에 남회를 다스랴는지라 선우 - 급히 비를 타고 교지국으
 로 드러가거늘 원수 - 제장 드러닐너 곧은디 선우 - 이제 교지국에 드러
 가니 잠시 수고를 악기 지말고 쫓차잡아 후환을 덜나호고 승전후 첩서를
 닥가 황에게 쥬달호고 남회티수의게 분부호여 전선 오십척을 들여라고
 교지국으로 향호니라

각설 황제 장원수를 전장에 보내시고 쇼식을 듯지 못호여 못니 근심호시
 더니 문득 원수의 장계를 올니 거늘 즉시 키탁호야 보시니 호엿스되 대
 원수겸 대사마 장희운은 돈수빅비호고 한장글월을 올나느이다 신이 한
 번 북쳐 충달과 거란티를 다 버헿스오니 다행호옵거니와 반적 선우 -
 남회 교지국으로 다라는지라 그저두면 후환이 될듯호기로 군사를 지촉
 호와 교지국에 드러가 선우의 머리를 버혀 황상의 통압아리에 올닐가호
 음노니 복원페하는 근심치마옵소서 호엿거늘 황제 보기를 다 호시고

게 갖거 호사 원수의 공을 못니 칭찬호시더라

각설 이적에 북홍노 - 강성호여 중원을 침범코져호더니 남선우 - 먼저
 침범호엿다 호는말을듯고 조신을 모아 의논호야 곧은디 이제 남선우 -
 중원을 침범호다호니 중원이 필연 약홀거시오 남선우 - 또호 피곤호지
 라 이씨를라셔 큰 군사를 거느려 중원을 쳐 명대를 사로잡고 피곤호 남
 선우를 파호고 띠하를 동일호일이 엿더호호호디 모든신하 - 다 알외어 곧
 은디 하교호심이 적당호니이다 호거늘 즉시 강병 팔십만을 조발호세 무
 득담으로 대장을삼고 동돌쇠로 중군을삼아 정일 발행호여 하북에 다스
 라 적서를 전호고 옥문관을 파호야 황복받고 중원을 범호되라 이씨는
 춘삼월 망간이라 황제 남선우의 란을 평정호고 황극전에 올나 만조빅관
 을 모아 티평연을 비설호시고 국사를 의론호시더니 하북절도스 장계를
 드리거늘 급히 썬이시니 호엿스되 북홍노 - 강성호여 명병 팔십만을 거

느리고 묵묵담 동돌쇠로더브러 옥문관을 파하고 증원디경을 범할엇스오
 니 복원황상은 명장을 갈히여 막으소서 할앗거늘 황대 보기를 다하시고
 골은사되 흉로—짐의 약함을 짐작하고 말병음이니 엇지 괴롭지아니하
 리오 할시고 공부상셔 과타의로 타원수를삼고 군스 삼만을 조발하여 쳐
 병을 막으라 하시니 타의 군병을 거느리고 즉일 말행하니라

각설이덕 대봉이 빅운동에 잇서 시셔빅가와 룽도삼략과 련문디리를 달
 룽할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대봉의 나이 이십일세라 한들은 로인이 공즈
 드려닐너골은타 이제는 승운을세가 이르렀스니 밤비 행장을차려 세상에
 나가 공명을 이루고 부모처지를 츠즈소서타 공즈—타답하되 의지업
 던 인명이 련행으로 로선성의 과타하신 덕력을 입스와 상금보전 할음고
 또 공부를 독실이 하시니 은혜를 엇지 이로 다 사례하오릿가 이제 세
 상에 나가라하시니 위선 부모성수도 가히 차자 알타이오니 이도 또한

은혜시오나 이 무인지경에서 어타로 향하라시나잇가 골은처주읍소서 로
 인이 골은타 공즈—이곳에 육림할신지 장지철년에 액운이 다하고 요흔
 시절이 당도할앗는지라 엇지 안연이잇서 동치아니하리잇가 공즈—다시
 물어골은타 여괴셔 증원이 을마나 되으며 길이 험준하오니 어타로가
 면 슈히 득달하오릿가 로인이골은타 황성리수는 일만삼천리요 룽셔는
 삼천칠백리오니 룽셔로 가소서하고 다과등을속을 쥬며갈은타 셔으로가면
 쥬점이 업슬거시니 괴같이 심할거든 요괴하소서 하고셔로 리별을셔 그
 결연흔 정례는 이로 추량치못할더라 공즈—선성의게 하직하고셔으로
 행하다가 련문을 숨혀보니 북방에 살기 범할앗는지라 북흉로의 증원침
 병함을 짐작하고 분격함을 이괴지못하야 초행로속하며 쥬야를 불변하고
 행하니라

각설 흉로—큰 군스를 거느리고 상군싸에 다스라 묵묵담 동돌쇠를 불

너굴은티 장항다 중원강산이여 장부의 심신이 열니는도다 뜻코 뜻토다
 명대의 도흔산천 우리런디 되리로다 은근이 희락하며 점々 드러가니 중
 국대원수 과대의 군스를 머므러 슈이다가 홍로의 룡약함을보고 겨셔를
 전하야 싸움을 청하거늘 홍로ㅣ 중군장 동돌쇠를불니 접응하라하티 동
 들쇠 과대의로더부러 사오십합에 지나지못하야 티의를 버히고 좌우로
 충돌하야 명진장졸이 너슬일코 항오는 변치아나라가 적의형세를 저당치
 못할줄알고 문을열고 항복하거늘 홍로ㅣ 북을울이고 잇튼날 하북에 다
 님르니 절도사 이동식이 접전타가 도주하거늘 지쳐 소멸하고 군스를 저
 축하야 괴쥬사에 이르니 자스 마두철이 대적하다가 삼합에 지나지못하
 야 도망하느니라 홍로ㅣ 의괴양々하야 성에드러가 쯤칭던즈라하고 군스
 로하야곰 양식과 우마와 부녀를 로략하니 백성이 환산하더라
 각설 부인 양씨 사랑과 대봉을 절도에 보내고 눈물노 세월을 보내더니

때에 홍로의 란이 요란하리라 모란동을 바리고 여러날만에 성쥬다정에
 다스르니 었던 녀아가 압해와 절하고 숭히 통곡하거늘 부인이 무려글으
 티 었더흔 녀아이판티 궁도의 형인을보고 이티저 판타하느뇨 그 녀자ㅣ
 었즈오티 부인은 저를 괴역지못하시나잇가 소비는 장미동 장한림딕 소
 비로소이다 불행이 홍로의 란을맞나 정처업시 다니옵더니 맛춤 부인을
 뵈오니 소저를 맞는듯이 한편으로 깃부고 한편으로 숭흐도소이다 부인
 이 반겨글으티 내 쏘흔 란을피하야 고향을 바리고 천리타향에와셔 너를
 맞느니 소저를 맞는듯 반갑고 숭흐도다 나는 사랑과 대봉을 이별하고
 사성을 아지못하거니와 소저는 왕석연의 욕을피하야 어덕로 잔다하더뇨
 그스이 소식을 드릿는다 란영이 었자오티 항즈에 소제 남즈형식으로고도
 에잠시 단여가진후 다시 소식을 아지못하나다하고 동행하야 덩쳐업시
 다니더니 삼일만에 청쥬사에 다스르니 한 로부인이 잇셔 무려글으티 부

인의 형식을 뵈온즉 미우 초초하시니 부인은 어더 계시며 무삼일노 이곳
 에 이르셨는잇가 부인이글으되 우리는 괴쥬싸에 사옵더니 흉로의 란을
 피할야 이곳에와 갈바를 아저못하는이다 로부인이글으되 과연 가실곳이
 업스시거든 토과의집이 부정하오나 편안이 거처하시도록하여 드릴이이
 다 로파는 괴왕 여간지산이 잇스온바 산중에 집을짓고 알흠을 구인당이
 라하고 평성에 남녀무론하고 부인과갓치의탁업는 사름을 구제함으로
 목적을 삼스오니 조곰도 엇지아시지 마시라하며 드러가기를 청하거늘
 부인이 사례하여글으되 궁곤흔몸이 길을일코 갈바를 아저못하옵는되 로
 부인이 관후홍심으로 동거하자하시니 이 은혜는 빅골난망이로소이다 하
 고 란영드려 날니글으되 너는 이 팔청춘이라 용모아람답고 괴질이 셴
 연하니 뒤아니 사랑하리오 려염에 내려가 빅년가연을 만나 인성고락의
 즈미를 알찌어다 나는 일즉 가군과 즈식을 리별하고 목숨이 썩치지안코

지우금 보전하섯스나 여년이 멀지아닌저라 맛당이 산중에 드러가 세월
 을 보내다가 천명이 진하거든 초목과 한가지로 썩으리라하고 또 락누하
 여글으되 라향천리에 의외너를 상봉하미 즈식을 만나니 다른이 업디
 니 이제 리별하게되나 엇지 숭흐지 아니리오 하시니 란영이 울며엿조오
 티 소녀의몸이 바룩 천하오나 사고무친홀싸에 엇지 부인을 리별하오릿
 가 되시고 슬하에잇셔 신을 받들니이다 하거늘 부인이 마저못하여 란영을
 다리고 로부인을싸라 그집으로 갈시 좌우를 숭혀보니 청송은 을사하고
 고목은 참련홀디 천봉만학은 부상에 높히잇고 기암절벽은 거림으로 들
 니잇다 청학 빅학이 춤을쥬니 별유견곤 버려잇더라 점々을나 셴경으로
 드러가니 암하에 잇는뿔은 봄빛이 연々하여 눈물을 먹음은듯 점々이 썩
 러지고 시냇가에 양류는 지는슈심으로 좌우에 둘러잇고 산은첩々 물은
 잔々 슬허하는듯하더라 부인이 비희 감창하야 숭흠을 먹음고 그집에이

르니 모든시비 영접하야 되실노 되시거늘 부인이 처사하고 머므르되 부
 인은 사랑과 대봉을 생각하고 란영은 장쇼저를 생각하야 주야로 하늘를
 우러서 축슈하야 눈물노 세월을 보되더라
 각설 대봉이 형장을 지축하야 여러날만에 룡셔에 이르니 히는 서산에 썩
 러지고 후운은 만련하야 지척을 분변기 어려운지라 곤되함이 조심하야
 바회를 의지하고 밤을 지늬더니 이윽하야 구름은 훗터지고 달빛이 명낭
 할터 잇던 젊은게집이 보이거늘 살펴보니 룡의 홍상은 달빛을 희롱하고
 설부화용은 흰구름이 휘여오르듯 은연히 티도와 정미흔 형석이 텅하
 영웅에 안목이라도 놀닐만하더라 공조크게 썩저글오되 유명이 현
 수하고 남녀 유별커든 엇더흔 녀귀완터 감히 장부눈에 보인나당니 그
 녀즈 일하야 가더니 이윽고 달빛이 음々하더니 풍우가 대작하야 우리
 진동하느중 엇던 선비가 홀연이 것헤와 안거늘 살펴보니 청포에 옥터를

씩고 손에 서척을 드렸스니 단정흔티도와 과이흔 용모가 진평의 동등하
 라 공조크대척하야글오되 유명이 다르거늘 영웅압해 오마흔 형실을 보
 이는다늘나 선비 썩흔 무료이 가더니 썩 이윽하디 풍우가 대작하고 돌
 과 모리가 날리며 엇더흔 장슈 열해와 서거늘 숨혀보니 월각투구에
 룡인갑을 입고 장창을 들고 우뢰갓치 소리하야 공조를 희코져하거늘 공조
 정신을 가다듬어 안식을 변치안코 호령하야글오되 사불범정이오 약능
 제강이라 그터 무슴연고 잇관터 오마흔 형스로 정더흔 장부를 희롱하
 논다 그장슈 무셔위하야 업드러글오되 쇼장은 넷을 한나라장수 리릉
 이올더니 텅즈썩 조원하고 군스 오천을 거나려 홍로를치다가 서운이 불
 길하야 홍로손에 잡히니 엇지 일사나 살막임이 잇스릿가마는 그러나 후
 일을 보리라하고 분을참고 홍로를싸라 적국에 드러가 홍로를 파하야
 텅즈의 은덕을 갑홀가하엿더니 썩을 이루지못하고 속절업시 죽어 홍로

산천에 못쳤스니 나라에 역적과 다름이 업슴으로 바록 귀신이 라도 려는
 와 부모의 신령압해 무슴면목으로 나가오릿가 이럼으로 만리타국에 청
 산고혼이 되어 슈빅년 잇습다가 오날밤에 공즈를맛나 원통호은 설화를
 흥음고 또호 공즈의 괴안과 지혜를 시험코져하여 녀즈도되고 후 선비도
 되어 뵈임이로라 원컨디 공즈호 쇼장의 갑주를 가져다가 성공호사와 쇼
 장의 원혼을 위로호쇼셔호고 문득 표현이 가더라 공즈— 갑주를 가지고
 룡서를찌나 삼일만에 산마평에 이르니 막호 사장이오 적호무인호터
 고이호 증성이 보이거늘 지세히보니 오초마라 스죽을 구르며 주호호호
 입으로 우뢰호치 소리호며 번키호치 달너들거늘 공즈— 고이호여 크게
 웨여글오티 네 비록 증성이나 대봉을 모르는다 인마역동호니 네 임즈를
 알거든 지세말고 곳싸르라호고 나아가 잇고니 그 말이 공즈를 살피보
 고 고기를 속이거늘 공즈— 티호호여닐오티 대봉이 나매 오초마 또호

싱겏도다 호고 칩더안져 경계호니 빠르기 비룡호호지라 이늘 산스평을
 찌나 철벽리 양도를 지나고 잇호날 이천삼벽리를 힘호니 중원디경에 당
 도호였더라 아떡 호로— 큰 군스를 거느리고 황성에 다스르니 황데 그
 형세를 당치못호출알고 남은군스를 거느리고 가만이 남성문을열고 금릉
 으로 향호시니 호로— 황성에 드러가 스면에 불지르고 군스를 지축호여
 황대를 좇차 금릉으로 싸르거늘 황데 하늘을 우려호 탄식호야글오티 숨
 호다 대명시절이 짐의게 이르러 망호출 잇지알니 호호시더라 아떡 대봉
 이 오초마를 지축호여 여러날만에 화룡도에 이르니 밤이 임의 삼경이라
 한 뵈인집이 잇셔 잠잔 수이더니 이윽고 지척을 불호호며 풍우가 대작
 호는디 천명만마가 짐을 에우고 엄살호거늘 숨호보니 팔진도 버린중에 한
 장수— 룡포운갑에 쌍룡투구를쓰고 청룡도를 빛기들고 봉의눈을 보름쓰
 며삼각슈를 거느리고 적도마를 밧비모라 드러오거늘 공즈— 정신을차려

팔괘를 의이며 단정이 안졌더니 그 장수 1 압해와 웨여글오티 대봉아
 그티란세를 평정하고 큰 공을 세우고 저할진된 레도가있고 지략이 출중
 할거시어늘 한갓 당들만하여 남의집에와셔 주인을 못지안코 임연이 있
 스니 엇지 이티지 무레하는다 공조 1 사례야글오티 쇼장이 연천홀은
 로 밋쳐 성까지못하고 실레하엿스오니 복원장군은 용셔하옵소서하며 다
 시 레하고 무러글오티 장군은 누시며 무삼죄조를 가라쳐주실지 황공복축
 하느이다흔티 그 장수 1 대담하되 나는 한나라 슈정후 관운장이로라 삼
 국시절에 조조와 손권을 버혀 우리 선주의 은혜를 갑코져하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런하를 평치못하고 속절업시 려몽의 흉계에 죽엇스니 슬흐다
 날닌 청룡검 어니곳에쓰며 적도마의 원성으로 우호쇼리 영웅의 혼백이
 엇지 온전할가 너몸이 비록 죽엇스나 미양 군스를 거느리고 팔진도를
 비설하여 적국의 후백을 꾸짖고 비명의 원귀를 위로하더니 이제 너를보

니 또호영웅이라 나의 쓰던 청룡도를 주노니 급히 금릉으로가셔 흥적
 을 파하고 대명의 사직을 회복하라고 문득 가거늘 대봉이 이러 공중
 을 향하여 무수이 사례하고 오초마를 침더라고 청룡도를 빗기들고 발경
 홀서 동방이 북앗는자라 잠시 그집을 숨혀보니 한 비스들이섯는티 한슈
 정후 관운장의비라 하엿더라 이를 미루어 생각하니 당초에 제갈공명과
 맹서하고 조조를 잡으려 북병하앗다가 과연 사로잡어 죽이려더니 이전
 에 유격되었던 의를 생각하고 노아보던곳이라 천추의 원혼이 이세사
 지 업셔지자 아니하고 이제 대봉을맛나 보검을 전하시니 과연 혼 영웅
 은 관공뿐이로다하고 즉시 처적을드러 오초마를 경계하야글오티 네 비
 록 증성이나 감산정괴로나셔 룡총의 일흔이 관중하니 험을다하야 대스
 를 성공케하라 금릉이 여괴셔 오천리라 금일오시전에 득달치못하면 칠
 년적공을거시 귀어히다 할거시오 국가홍망이 일쥌에 판단될거시니 너는

김하 요량하여 평성저조를 다하라하니 그 말이 귀를 기우려 이윽히 듣
 다가 말을 맞치매 주홍갓흔 입을 버리고 네굽을 날네 번기긋치 달니
 천리강산이 눈압해 현황하더라 대봉이 희형하여 청룡도로 일광을 희롱
 하며 백운산을 지나고 운주를 지나 황릉을 넘어 황하를 건너 금릉을 바
 라보니 적병이 성문을 에워쓰고 괴치와 검극은 일월을 가리우고 고각함
 성은 띠디를 진동하느니라 이때 황데 적세를 당치못할줄알고 성문을 구
 지닫고 나지안터니 적장 목륙담이 군스를모다 스면울 에우고 또 털과
 오만을 거느려 성문을 쳐타리고 성중에 드러와 좌충우돌하며 명진을 엄
 살하니 명진장졸이 량식이 씌어지며 괴운이 식진하여 접전치못하느니라
 우승상 왕희와 병부상셔 지탁이 황데싸 알외여글으터 일이 가장 급하오
 니 복원황상은 항복하사 옥테를 보전할가 바라느이다 하거늘 황데 마지
 못하여 옥시를 목에걸고 항서를 손에 들고 문에나실시 룡누가 바갓흐시

며 하늘을올어려 통곡할야글으사터 백년사적이 내게망하니 엇지 통분치
 아나하리오 대원슈 희운이 잇섯다면 엇지 이지경에 이르랴 하시더라 좌
 우익관이며 제장군졸이 뉘아니 통곡할가 흥로! 승전고를 울리며 항복
 을 지촉하니 호령이 추상긋더라 이때 대봉이 점々 나아가 살펴보다가
 분을 이기지못하여 운문갑에 털갑투구를쓰고 청룡도를 빛겨들고 오초마
 를 밧비모라 적진을 헛치고 벽력긋치 웨여글으디 반적 흥로야 대국충의
 장군 리대봉을 아는다 청룡도로네 머라를버혀 우리련조의를 분을 써슬지
 라 사양말고 급히 목을느려 칼을 티적하라하니 적장 목륙담이 응성하여
 말을나오느니라 일합에지나지못하여 청룡도가 날리며 목륙담의 쓴 투구
 | 쳐여지느니라 적장이 투구를알코 정신을 슈습지못하여 피코져하느니
 대봉의 청룡도 두번 빛느는곳에 적장의 머리 썩러지느니라 칼뚫헤 띄여
 들고 좌우충을하니 군졸이 대경하여 죽는조! 티반이라 흥로! 장대에

안저 황대의 항복하라는 양을 보고 대희하다가 뜻밖게 총의 장군을 만나 군
 사를 것짐지 못하여 무릅담의 죽음을 보고 대경실척하여 즉시 중군에 호
 령하니 동돌쇠가 왼손에 허롱검을 들고 오른손에 털티를 잡고 승운마를 급
 히 물며 크게 웨여갈으되 명장 대봉아 텨하장군 동돌쇠를 아는다 하늘이
 날갯흔 장수를 버시기는 명대를 사로잡고 우리 황대로 텨하를 통일케하
 심이라 너는 무슴지조 잇관디 텨시를 거스려 필마단창으로 대전중에 총
 돌하는다 네 머리를 버혀 허롱검을 씻고져하노니 쌀나와 바드라하며
 어우러져 싸화 팔십여합에 일으도록 승부를 분별할수 업는지라 이때 대
 봉이 팔패를 응하여 동셔남북의 방위를 각々 박구어세우고 신출귀몰한
 방법을 쓰니 서로 진퇴하느되 죽는지 오직 적장이라 동돌쇠 군사를 제
 축하고 홀귀를 두루며 조익진법을 변하야 금사진법을 쓰는지라 대봉이
 불행이 그 진중에 쓰엿더니 문득 오초마를 호령하며 무인지경갓치 좌총

우돌하니 적진장졸이 황겁하여 항오를 차리지 못하고 금사진이 변하여
 추풍락엽갓치 허여지는지라 남으로 향하야 유작장군을 버히고 북으로
 향하느듯 현무장군을 버히니 압해군사는 뒤에군사 죽는줄을 모르고서
 편장수는 동편이 함몰하느줄을 모를적에 총의장군의 칼이 번듯하며 동
 돌쇠 머리 쪼러지는지라 칼삿헤 췌여들고 장터에 다라드러 크게 웨여갈
 으되 반적 흉로는 쌀나와 항복하라 만일 지체하면 네 머리도 동돌쇠
 와갓치 할리라고 호통이 벽력갓더라 흉로이 이에 황망중장졸을 점고
 하니 백만군중에 남은군사이 겨우 오천이라 흉로이 크게 놀나 그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하거늘 이때 대봉이 흉로의 군량과 마초를 앗고 바로 흉로
 를 쫓차 임무주에 다스르니 중련에 잇던화가 서산에 걸넛더라 이때 황대
 적세를 당할수 업서 항복하려고 흉로의 진으로 향하실적에 난데업는 일원
 대장이 조청 총의장군이라하고 필마단창으로 풍운을 부리며 무릅담과 동

돌쇠를 버히고 다시 흉로를 쏘차감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며 죄우를 도
라보아 글을 사되 저 장수 - 저 칭찬의 장군 리대봉이라 하니 경의 무리가
아는 다 모든 선하 - 알외여 글을 되 신의 무리도 아지 못하거니와 하늘노셔
외공장군이 왔느니라

각설 장희운이 남선우를 쏘초 교지국에 다스르니 선우 - 질척하며 남은
군사로 막다가 그 형세를 당치 못하여 항복하거늘 원수 - 말우에 안져서
지저글으되 키 크흔 선우야 네 할갓 강포만 밋고 대국을 침범하니 배죄를
의론할진딘 쇼당 머리를 버혀 분을 씨슬거시로되 항복할자는 죽이지안는
지라 일노하여 살너두노니 후일은 두무음을 두지말고 충성을 다하여 된
즈를 섬기라하되 선우 - 엇드려알외되 맛당이 죽을목숨을 살나시니 원
슈의덕택이 하히스스온지라 엇지 다시 범남흔뜻을 두리잇가하고 항셔와
례단을 올너거늘 원수 - 밋아가지고 급히 장계할후 선우를 방송하고 군사

를수여 증원으로 도라오더라 이세 황데 금릉을 떠나 환궁하시교 리대봉
을 칭찬하시며 또 장원수의 쇼식을 아지 못하여 미일 근심하시더니 맛춤
원수 - 장계할것늘 기탁하시니 하엿스되 대원수겸 병마총독 장희운은
근돈수함음고 승첩할 계문을 올나느니라 신이 한번 북쳐 적장 거란티를
버히고 다시 교지국에 드러가 선우를 항복받엿스오니 복원페하는 근심
치마음쇼셔 하엿더라 황데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교 깃버하시며 원수의
공을 더욱 사랑하시 벼슬을 도스와 대스마겸 이부상셔를 제수하시교 배
관을 명하여 원수오노곳에 직첩을 전하라하시다

각설 흉로 - 도망하여 서히로 다라나거늘 대봉이 오초마를 달너가셔 전
션을 잡아타고 회석이 쏘츠니 흉로 - 홀일업셔 물에 빠져라하거늘 대봉
이 크게 호령하시며 청룡도 두르느바람에 흉로의목이 쪼러지느니라 집어
들고 적병의 계령을 나려글으되 너의를 다 함몰식일거시로되 임의 죄수

를 죽임으로 용서하여 살너보내나 도라가 흉로 죽은 소식이나 말하라
 디 적진장졸이 울며 사죄하고 도라가더라 대봉이 희선하여 중원으로 도
 라오더니 우연이 큰 바람이 이러나며 풍량이 산곳처 속구치는지라 탄비
 가 표풍하여 무변대회로 떠나가거늘 대봉이 크게 놀리며 탄식하야 갈아디
 전성에 무슴죄로 이성에 낫스며 또 혼 별셔 골속에 죽을몸이 천형으로
 사라 풍진을 쓰러바리고 장춧 부모의 존망을 알아볼가할다가 또 이디경
 을 당하니 원한이 하늘에 스모치며 또는 흉로를 멸하였스나 뒤라셔 대
 봉이 세상에나와 그 공을 일운줄을 알니 오호더라 일향 풍파가 흉々하
 여 만경창파에 정처업시 떠가더니 사흘만에 바람이 뜻치고 수세 잔々하
 며 비가 스스르 한곳에 니르거늘 살펴보니 무변대회중 한 섬이잇서 슈
 목이 울々하고 파실이 낭々하거늘 대봉이 괴같이 심하여 비를타이고 실
 파를 주어먹더니 나무사이로 한 자최소리나며 고이호거시 오거늘 숨혀

보니 전신이 모다 얼이오 레양은 사름비슷호되 무엇인지 알수업는지라
 그것이 점々 갓가이와 첫해안즈며 갈아디 상공은 어디게시며 무슴일노
 이곳에 와계신잇가 대봉이 그 음성을 드르니 정녕코 사름이라 디답호되
 나는 중원사름으로 흉로를쫓차 서릉도에 드러갓다가 회정호는길에 표풍
 하여 이곳에 왔거니와 로인은 본디 이곳에 계신닛가 그 로인이 티봉의
 말을듯고 자연 비감하여 빙수에 눈물이 비오듯호며 니르되 나는 중원사
 름이더니 우연이 이셔음에와 여러히틀 고성하다가 오날々 공즈를 맛나
 고국 음성을 듯스오니 었지 반갑자야 나릿가 호며 깃버도호며 숨허도호
 거늘 티봉이 절노 비창하여 눈물을 먹음고 다시 무러글으되 로인이 중
 원사름이라호시니 어니때에 중원셔 떠낫스며 또 혼 친족이나 즈손이 잇
 습는잇가 로인이 티답호되 나는 귀류사름이더니 독즈를 드리고 적소에
 가다가 슈중에서 리별호고 사침을 아죽도 아지못호는이다 티봉이 이말

을듯고 정신이 아득하여 다시 무리골이티 독자를 슈중에 리별이라하시
 니 존호는 뒤라하시며 저제일홍은 무엇이오 나흔 몇치며 무슨일노 저소
 에 가지더닛가 로인이골이티 나의성명은 리익이오 아히일홍은 티봉이라
 일죽 청운에 올나더니 왕희의 참소를입어 저소에 가다가 흉악한 사공의
 변을당함과 서로 리별을때에 십삼세오 그후 팔년을지냈스니 이제 헤아
 리건티 이십일제가 되얏깃다하거늘 공조- 그제야 저부친인줄알고 북
 디통곡하며골이티 부친은 엇지 쇼조를 모르시닛가 쇼조는 곳 불효조
 티봉이로소이다 사랑이 티봉이라 하논말을듯고 놀리며 티봉의 손을잡고
 통곡하며골이티 대봉아 네 슬아 육신이왔느냐 죽어 혼이왔느냐 하늘이
 감동하여 하늘노셔 내려왔느냐 싸에서 소숫느냐 씬이나 황련이나 씬이
 어든 씨지말고 혼이어든 함께가자 하며 괴절하거늘 공조- 눈물을 곳치
 고 위로하며 갖가이안져 숨혀보니 넷적모든 얼골에 모발이 남조하고넷

적듯던 음성은 변치안코 완연하더라 사랑이 정신을차려 닐너같이티 당
 초 슈중에 네몸아 죽은줄 알았더니 이날 곳 맛남이 어인일이노 필경하
 늘이 지시할심이라 나논 그씨 슈중에 죽게되엿더니 맛춤 하늘의 구하심
 을입어 이곳에와 찌러진 실과와 절노죽은 고기를먹고 세월을 시름업시
 보니얏거니와 너논 어이하여 살아 이곳에 왔는다 공조- 또 혼 눈물을먹
 음고 고향야골이티 쇼조- 또 슈중에싸져 속절업시 죽게되얏습더니 하
 늘의 도으심으로 거북을타고 사라난말이며 유티 빅운동에 드러가 의탁
 공부하던말이며 룡서에 다다라 갈슈엇은말과 화룡도에서 운장을맛나 청
 룡도 엇은말이며 금룡에서 필마단창으로 적진을 헛치고 무투담 동돌쇠
 를 버히고 서릉에 드러가 흉로를 버히고 회정하다가 허상에 표풍야온
 말을 낫낫치 고향티 사랑이 숨히고 또 깃분가온티에 탄식야골오티 너
 의모친과 장소저의 사성유무를아는다 티봉이 티답하되 일절 아지못하

는이다 하고 즉시 비에올나 함께 중원으로 도라오니라
 각설 장원슈 1 교지국을 떠나 여러날만에 회음성에 이르니 레관이 직첩
 을 올니거늘 북향스리하고 떼여보니 티스마 티장군겸 이부상셔 제슈호
 신 교지러라 이에 군사를 회음성에 류전하고 상소에 직첩을 동봉하여
 계달하니라 레관이 도라와 상소와 직첩을 올니거늘 떼여보시니 호앗스
 되 신첩 장의황은 근돈수빅비 상언하느다 신첩이 본디 하방천인으로
 요형 룡문에올나 벼슬이 사랑에 이르렀습다가 선우의 란을당호와 또 범
 남이 티원수 인신과 상장군 절월을 밤스와 적병을 물니쳤스나 녀조의몸
 이 남조로 형호와 폐하의 총명을 드레옵고 중티호 벼슬을 호앗스오니 귀
 군망상호 죄상을 론감하옵소서 사실인즉 신첩의 아비 조녀업셔 한탄하
 다가 늦게야 신첩을 두어 리익의 아들과 정호호얏습더니 리익이 상소하
 다가 소인왕희의 참소를 만나 절도로 구양가는지라 신첩의 아비 조정스제

와 신첩의 전정을 생각하고 분발하여 문득 세상을 떠느옵고 또 어미도
 한날 세상을 바렸스오니 신첩의 몸이 혈々무의호와 주야 한탄이옵더니
 왕희 중미를노아 청호호거늘 허락지안코 중미를 썩지져 보되얏습더니
 왕희 권을밧고 신첩의 고단함을 룡모하여 제조식으로복을 거느리고
 스고무인 김흔밤에 니당에 드러와 겁촉고져하미 강약이 부동호와 조결
 코져하더니 시비 란영이 티헝코져 피신함을 권하옵기로 생각하오니 살
 아 쓸티는업스오니 죽으면 도라잔 아버의 분원을 갓지못하겠습기로 남
 조의 의복을 갈아입고 오경 김흔밤에 담을넘어 풍찬로속하며 덩쳐업시
 가옵더니 마침 최어스집 부인의 이홀호는 은혜를 입스와 의탁하얏다가
 락은이 망극호와 벼슬이 원수에 이르러 우호로 님군과 조정을 속이고 아
 리로 군스와 백성을 속였스오니 이죄를 생각하오면 만스무셔이로소이다
 그러호오나 죄상을동축지 못호심으로 사마장군겸 상셔의 칙지를 나리시

오니 려은은 더욱 망극하오나 죄중에 티명함은기 위하와 칙지를 도로받
 치오니 거두시옵고 신첩의 과망은죄는 국법으로 시형하시고 무죄호리
 의부조의죄는 사함옵시기를 업드려 발원함은이 다 하얏더라 황대 상소
 를 보시고 빅관을 입시석여 의론을실시 닐아니 칭찬호리오 왕희는 저의
 죄를알고 실석호더라 황대 보기를다하시고 무수이 탄복호시며 또 정절을
 가상이녀이사 사신을불너 무인도와 빅설도에간 리티봉의 부조를 귀양을
 풀어 곳 브르시며 희운의벼슬을 도도와 좌승상을 호이시고 각도털음에
 흥관호야 열녀문을 제우고 또 의황의 상소를 스히에 반포호시니 듯는자
 | 모다 칭송이오 희음성에 장졸들도 그제야 원수가 소져인줄알고 입을
 버려 탄복호더라

차설 사신이 려조의 명을받들고 무인도에가니 리익이업고 빅설도에가니
 또호티봉이 업는지라 죽사 도라와 스연을 고호티 황대 더욱 무료이아

시더라 장소져 | 희음에 류진호고 절에간 스신을 기다리더니 사조의 도
 라음을듯고 다시 글을 올렸거늘 리탁호시니 하얏스되 신첩 의황은 돈수
 상언함은이 다 신첩의몸이 녀즈라 규중에 처함이 을습거늘 남조의모양
 을지여가지고 외람이 벼슬에 나아가 지어출전까지 함은기는 려하를 평
 정호고 아비와 남군의 원수를잡고 수이 상봉호기를 바랐더니 이제 스신
 의 공행호소식을 듯스오니 리익부조의 죽음이 정녕호지라 만리풍파에
 수중원혼이 되듯하오니 엇지 한심치아니함을잇가 후 황련의 감응호심을
 밧아 소식과 종적을 아을가호고 허수가에가셔하는남씨 향호와 정성된
 괴도나 몇철잔 드리고저하오니 북망성상은 널니 등축호시샤 기간 슈유
 주시기를 바라나야 다 하얏거늘 황대 보시고 더욱 비참이녀이사 지화삼
 천원을 하사호시샤 괴도설비에 쓰라호시다 장소져 | 이에 장졸을 거는
 리고 허수에 다다라 빅리사장에 구름차일 늘히치고 운문티병과 청홍장

막을 스면으로 들너치고 비단화초가 진삿을 여겨저의 썩져눗코 휘황등
 족을 전후좌우 거러눗코 러러장졸들이 정々흐향으로 기치검극을 버려세우
 고 엄숙하게 응위하니 괴구도 도커니와 비감흔 심정이 황홀하야 밋천듯
 취호듯하니 그 경상이 가궁하더라 장소저 - 남북은 버셔눗코 소북을 단
 정이호고 중앙자리에 나아가 두무릎을살고 업드려 정성된 괴도를 드리
 는티 몬져 사랑을위하야 괴도하니 날으티 오날 이자리를 특별이 비설하
 음고 하느님께 정성된 괴도를 드리옵노니 소부의 죄악이 지중하와 식천
 슬하에 한번 신성도 못하옵고 만리절도에 가심을 보앗스오며 길이 아득
 하와 안후를 탐지치못하오니 답々하스정이 실노 측량업스온중 소부는
 형석을 남조로 변하와 입신양명하야 선우의 란을 평정하코 랑가부모의
 원수를갑고 반가히 만나불가 하엿더니 이번 스신의 회보를 듯스오니 발
 셔세상을 떠스온듯 이모호스음을 이길수업스오니 간절이 원하옵노니

황천이 굽어 감응하사샤 식천의 소식과 종적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하코
 등곡하니 그 경상이 엇더할가 또 공즈를위하야 괴도하니 날으티 죄인
 의황은 하느님께 경배하며 괴도하옵노니 하늘이 높흐시나 나진말숨을굽
 어드르소서 년월일시 할씩나서 부모의 명령으로 백년간약 미져눗코 방
 년의 성취를 기다리더니 전성에 무슴죄로 한번도 티면치 못하옵고 험악
 혼 백설도에가니 숨히 생각하는 회포가 일노브려 은근이 병이되고 명월
 사창 지는흐숨과 세우비々우는눈물 어느누가 짐작하을잇가 세상인연이
 더욱 박하와 부모가 또흔 구물하니 의탁이 가련하은중 삼상을 맛천후슈
 심장탄으로 심규에 홀노잇셔 세월을 보내옵더니 불촉흔 왕희가 죽식을
 보내여 오경 길흔밤에 겁죽고저함으로 의사 - 삭막하여 죽기로 자량하엿
 습더니 란영의 역권함으로 남북을입고 담을넘어 망명하와 초헿로속하며
 불고렘치하코 류리기결하다가 어진 최어스집에 의탁하와 문산과 기타

병하기를 약간 공부후 후 하늘의 도으심으로 룡문에 올라 벼슬이 자랑에 처
 하니 일변 의론하오면 녀즈의 행동이 괴상다 하겟스오나 무남독신이 환
 란을 괴로이녀여 세상을 바라면 부모의 원한을 갚을사름이 업고 부자의
 상봉에 후상에 잇는자라 이럼으로 남군과 조정을 괴망함읍고 환로에 내
 와 요행을 기다리더니 맛츨 선우의 란을맛나 남군이 근심하사매 즈원출
 전하여 도적을 파하와 성공함읍기는 군상의 은혜를갓고 부자와 부자
 다시 맛는기를 바랐더니 이번에 구양 풀너가던 스신이 거져오나 숭호읍
 니이다 우리남군 고기비에 장스하엿는가 역라수에 굴원을싸라 총절을
 의론함읍는가 원동함고 바창함오이다 슈중에 원혼되신 남군과 차성에
 전정업는 의황이여 어니곳에 설원함을잇가 비나이다 하는님께 비는이다
 여을함고 가련함은 우리남군 극락으로 환성케 함읍소서 숭히소서 띠다
 만물 조화음은 고단함 의황을 숭히소서 의황일신 죽는날에 우리남군

다시맛나 저년계상 무궁함 스설을 다 말함고그리고 슬허함던 정회를
 폐함음소서 함고 빌기를 맛치매 원존에 닭의소리나며 동방이 밝아오
 니 알과타 우리남군 띠당길이 밤바 슈중을 하직함고 극락으로 가는듯
 물에잠긴 달빛은 정신이 황홀함고 중던에 쓴구름은 갈길을 이젓는듯 바
 람은 소슬함고 물소리느 잔々하다 쇼제 궁글며 동곡함니 상하인민과 수
 만장졸이 뉘아니 띠루홀가 산천초목은 빛을일코 하늘도 늦기느듯 세우
 가 비사함여 눈물을 금치못함다라 현무장군 한총이 엿즈오디 군중에 곡
 성이 진동함니 원수는 진정함읍소서 함거늘 원수— 눈물을 거두고 장졸
 을 호쾌함더니 어더셔 우름소리나며 후 대봉도 부르고 후 소져도 부르
 는듯 처량함께 들니거늘 원수— 무음이 즈연 비감함여 한총드려 닐너글
 으티 엿더함사름이 저리우는다 바창함 사름을 더욱 슬게함니 고이함도
 다그 사름의 형식을 살펴보고 다려오라 한총이 명을듯고 죽시 나아가

엿던 두 녀인을 다려왔는지라 원수 - 무려글이티 녀인은 어티살며 엿지 이곳에 지나며 무슴일노 우는다 녀인이 고히야글이티 소녀의집은 괴쥬 짜이옴더니 팔즈 괴박하와 일쥬 가군과 즈식을일코 쯔 흥로의 란을당하 와 류리하다가 텅헿으로 구인당에 의탁하엿스오며 이곳에 오기는 원수의 류진하신 괴장하 쯔문을듯고 구경하기위하야 왔습다가 원수의 괴도 하시는 말씀을듯고 가군과 즈식을 생각하오매 쯔흔 원수의일과 갓흐으 로 슨홈이 발동하와 흥곡하엿는이다 원수 - 말을듯고 쯔신이 아득하 여 다시 무려글이티 괴쥬짜에 살앗다하니 동리일홈은 무엇이며 가군은 뉘라하며 아들일홈은 무엇이며 무슴일노 리별하여 슈중고흔이 된듯하노 녀인이 티답하되 동리일홈은 모란동이 옴고 가군은 사랑벼슬 하엿스오며 즈식일홈은 대봉이라 쯔소에간지 팔년에 쇼식이 망연하니 응당 슈중에 고히이 된듯하오이다 원수 - 그제야 양씨인줄알고 급히 내려가 붓들고

흥곡하야글이티 시모친의 쯔세가 엿지 이티 쯔참혹하신잇가 쇼부는 곳 장소져로소이다 하며 괴쯔하거늘 양씨 쯔 흥곡하고 란영이 쯔흔 쇼져라 하노말을듯더니 달녀들어 흥곡하며글이티 우리쇼져는 란영을 아지못하 시나잇가 쇼져 - 란영이란말을듯고 쯔쯔신을 쯔정하여 보며글이티 반갑 고 슨하다 모친과 너를 이곳에서 맛날줄을 엿지 쯔하앗스리오 한손으로 양씨의 가슴을 붓들고 한손으로 란영의 손을잡고 티쯔흥곡하니 산천이 슬허하고 초목이 우는듯 곡성이 쯔동하노지라 이윽고 쯔장은 쇼져를 위 로하고 란영은 양씨를 위로하며 피차 쯔정하교 쯔후스단을 낮々치 쯔화 하니 한편으로 슨하교 한편으로 깃뭇은 이로 쯔량치못할너라 쇼져 - 다 시 시모 맛노말삼으로 텅페에 배달하나라

각쯔공쥬 - 부친을 피시고 서음에서 쯔나 여려늘만에 한양에 득달하야 괴스에 스쳐하교 상소와 밋 흥로의머리를 올니나라 이쯔 황데 리익부즈

의 사심을 물나 뒤우 무표이 생각하시더니 맛춤 장소저의 상소를 드리거
 늘 썩혀보시니 흥엇스되 황상의 넓으신덕력으로 회음에서 괴도흥왔스오
 나 식부와 방군의 소식을 도모지 알수업스오니 아득흔정곡을 엿지 다 측
 량흥을잇가 다만 흥곡을 썩이옵더니 천만삼백에 식모를 맛스오니 이는
 필경 던우선도흥음이라 희흥은말씀 엿지다 알외오릿가가 이거시다
 황상의 망극흥신은덕이오이다 그러흥오니 왕희는 나라의 쇼인이오신
 첩의 원수오니 복원페하는 왕희의 부즈를(신첩의게 하자흥시면 성공흥
 던 날닐팔노 스정업시 버혀 조정을 복히고 신첩의 원수를잡하 후사들을
 증배코져 흥는이다 흥엇거늘 황제 보시기를 다흥시때 썩흔 엿던장수의
 상소와 흥로의머리를 올니거늘 퍼보시니 닐넛스되 죄인라대봉은 근돈수
 빅비흥고 승전흔 스연을 제달흥음는이다 산의 부즈 죄악이 극중흥음으
 로 황상외져 멀니흥시샤 적소로 가옵다가 희상에서 사공의 희를맛나 부

즈 슈중에 함물흥앗더니 하늘의 구흥심을업어 다시 상존흥와 빅운동
 에 팔년을 머무렛습더니 문득 생각흥오매 황상외져 절도죄인을 스살흥
 살듯흥음고 슈중에싸진 아비의 고향로모의 존망을 아지못흥와 두루
 생각이 답々흥음으로 약간흥구를 가지고 중원으로 오다가 농서에 다져
 라 리릉의 갑쥬를엇고 화릉도에 니르러 운장의 깡을 엿은후 황성으로
 오옵다가 뜻즈은즉 반적 흥로 황성을 침범타가 금릉을 범흥였다 흥오
 매 분리가 대발흥와 죄를 무릅쓰고 날마다 천리지흥흥와 금릉전장에 득
 달흥와 팔마단창으로 적진을 파흥고 조청총의장군이 다 흥고 좌우총들을
 여적장 무득담 동돌쇠를 츠데로 버히고 흥로를썩차 서릉에 드러가 흥로
 를버혀들고 도라오닐길에 우연이 표종되어 만경창파에 덩쳐업서 삼일을
 가다가 무인절도에 다스라 슈중에 투사흔 아비를 맛났스온지라 괴왕 죄
 인이오나 부즈 정례에 참아바리지못흥와 황명을 거스리고 함씨 나왔스

오니 이 죄가 만사무척이로소이다 그러나 승상 왕희는 국가의 역적이오
 나 신의게 내려주시면 흉로 버히던 청룡도로 조처할오리이다 신의 부주에
 죄악은 왕희의 부주를 조처할은 후에 상당이 감죄할은 소셔 할앗더라 황
 데 보시기를 다할시매 일변 놀내고 반가이 녀이샤 죄우를 보시며 골은샤
 디 짐이 북지 못하야 이디훈 충신을 절도에 보내고 흉로의 환을 맛나 종
 묘사직이 경각에 위티홀더니 맛츨 엇던 장수 필마 단창으로 반적을 파하
 고 락하를 평정할엿스니 그공을 의론하면 맛당히 락하라도 반분을 만하
 나 성명과 종적을 물나 주야 한탄할던 처이 상소를 보니 그때 충의 장군이
 라 흥든 장수 진실노 사랑 리익의 아들 대봉이로다 엇지 반갑지 아니호리오
 그러나 회음에잇는 장쇼저 상쇼하야 왕희를 잡아 보내라 할앗스니 공
 신은 일반이라 한낫 왕희를 엇지 두곳으로 보내리오 호시고 미결호시더
 니 간의티우 도용이 알외여골은디 복원폐하는 한양과 회음에 하교하샤

장쇼저와 리대봉을 혼곳에 모허라 호시고 왕희를 내여주소셔 할거늘 황
 데 그말을 을허녀이샤 즉시 두곳에 하교하샤 아모늘 환성으로 오라호시
 고 리익의 죄는 물서호시고 벼슬을 도사와 우승상을 할이시며 대봉으로
 대사마대창군을 봉호시고 레관을 한양으로 보내시다 이때 레관이 귀문
 과 교지를 대봉의게 전홀티 대봉이 북향스리호고 예여보니 황성으로 오
 라 호신스의어늘 즉시 발히호여 황성에 득달호니 조정익관이 청도호고
 만성인민이 구경을 호더라 사마 승상을 되시고 켈하에 업드려 죄을
 청홀티 황데 면에 나오샤 사마의 손을 잡고 또 승상을 잇그려 골은샤티
 짐이 북지 못하야 충신을 모르고 소인의 말을드러 만리절도에 바렸더니
 경의 아들이 짐의히물을 한치아니호고 필마 단창으로 백만적병을 물니쳐
 고 망케된 종묘사직을 보전케호니 그 은공이 엇지 망국지아니호리요 소
 무는 북희상에 절을 지히다가 십여년후 고국에 도라와 회머리로 문대의

께 뵈왔더니 승상은 무인절도에 죽을변하다가 팔년만에 도라와 만신의
 렬노써 짐을 뵈이니 렬속에 충신이라 가장 반갑거니와 한편으로는 대단
 히 무료한노라 브라건터 전스노 생각지말고 다시 짐을 도으라하신티 승
 상이 다시 업드려 머리를 두다리며 알외여글으티 용납지못할 죄인을니
 그리이 용서하시고 또 일품작록을 제수하시니 황공하기 망극하여이다하
 고 사은후 물너오니라 대스마 퇴-조후 분을 이기지못하여 청룡도
 로 최상을치며 무스를 호령하여 여적 왕희와 스공의무리를 잡아드리라
 후티 무스-청령하고 왕희와 스공십여명을 결박하여 잡아드리거늘 때
 사마-승상부에 좌고하고 스공의무리를 문초하여글으티 무죄한 사람이
 절도에 가는것도 원룡이 녀일거시어든 너의 무슴곡절노 물속에더져 죽이
 논다 스공의무리 알외되 죽을죄를 지엿스니 엇지 발명호오릿가 처분터
 로 호소서 말이 맛지못하여 대스마의 청룡도 빚나며 스공들의머리 검광

을 좇차 나려지되 늙은사공 한명은 죽이지안코 닐너글으티 너도 소당 죽
 일거시르티 적이 참직하여 용서한다하고 또왕희를 문초하여글으티 너의
 간혹하고 흉악흔 죄상은 스스로 알지니라 사름이 세상에나서 엇지 그티
 지 무도불축흔 형스를 할리오 하고 분기를 이기지못하여 칼을드러 호통
 흘지음에 난티업던 풍진이 이러나며 한장수-철성그린 투구에 통린갑
 을 쓸쳐입고철척장검 손에들고 필마단창으로 달녀드러 싸을치며 크게
 웨여글으티 상공은 누신지 모르거니와 왕희와 석연을 역신으로 처치하
 시는듯하오니 복걸상공은 쇼장을 위하야 분을 진정하시고 쇼장의게 벌
 니시면 나라의 여적의죄로 처참하려니와 쇼장의 식천과 낭군의 원수를
 갑고저하오니 두번 생각하사사 쇼장의게 령만나리시면 장군의 수고를
 덜니이다 하거늘 대스마-곡절을 무르되 의기남조요 장수의몸이되여
 식천과 낭군을 말습하시니 엇지심이오닛가 장원수-티답하여글으티 나

논 박명훈 너조소이다 일즉 식부와 낭군이 왕회 참소를입어 만리절도
 에가다가 슈중원훈이 되었스오므로 규중너조의 형수를 변하여 남조로귀
 망하고 입신훈후 조원출전하와 도적을 파하고 부모와 낭군의 원훈을 풀
 고저하엿더니 방금 드르매 장군이 왕회부조를 처참하신다기로 불고체면
 하고 잔청하옵는다 하거늘 대스마 - 놀나 무리글이티 그러하오면 낭
 군의성명은 무엇이며 어느사에 살앗스며 쇼저는 누덕너조신잇가 쇼재
 티답하야글이티 낭군은 모란동 리사랑의 조제옵고 나는 장미동 장한림의
 녀조소이다 대스마 - 이말을드르매 가슴이 답답하여 동곡이 절노나며
 날이티 쇼저는 리대봉을 아시느잇가 쇼저 - 정성이 이러하시기로 슈중
 에 죽게되었던 잔명이 부천을 뵈시고 왔도다 쇼저 - 그제야 낭군인줄알
 고 짜에업더저 일장동곡하니 그경상은 참도로혀 신기하더라 피차 전정
 훈후 쇼저는 부인 양씨를 뵈시고 시비 란영을 거느리고 온말을 날으며

사마는 부천이 함씩오셔 계신스연을 말훈후 승상과 부인양씨와 사마대
 봉과 원수 의화쇼저 - 서로 상견례를 행하니 레도논 고사하고 웬집이
 서로붓들고 동곡하니 런디일일과 초목금수가 다 늦기는듯하더라 란영이
 승상부자와 티스마 양위압해 위로하여 진정하고 닳듯이 피차간 격근사
 달을 일장이야기하니 그경력하바일이 모다 전후 세상에 들은비러라 사
 마 - 다시 죄의하고 왕회의 부조를 잡아드려 곤장 삼십도에 크게부지저
 글이티 너의죄상은 살지무셔이라 죽여 후사들을 증계할거시로티 우리일
 설의 괴망고초는 일구난설이나 북으신 하늘이 굽어보사샤 각기 다 목숨
 을 보전하야 서로 맛났스니 딱비 하늘의 덕을신바이라 이러하 거스는
 침으로 드물기에 너의를 용서하여 원지명비만 하갓다하고 황대씨 슈달
 하야 왕회는 삼만리 무인도로 비송하고 석연은 백설도에 안치하니 황대
 더욱 그 관후함을 칭찬하시고 만조가 다 탄복하더라 황대 승상부조의

공퇴와 장소저의 충렬을 더욱 칭도하시 승상 리익으로 초국 뒤상왕을
 봉하시고 덕사마 리대봉으로 초왕을 봉하시고 부인 양씨로 정렬왕비를
 봉하시고 부인장씨로 충렬왕비를 봉하시니 승상부조 구지 사양하시
 가 마지못하여 초국으로 향하시 모란동 선영에 소분하시고 장미동 장한립
 부처의 분묘에 극진이 소분히례하고 초국으로 즉히하시다가 최어스집에
 려림하시 쇼부인이 반기며 만단하례하시니 충렬왕장씨 뒤당에 드러가
 이전일을 빅비 처사하고 최소저의 손을잡고 반기니 쇼부인이글으되
 왕에 동거함은 막비연이어니와 당초 남조이신줄 알았더니 이제 성공
 후진정을 말씀하시니 과연 희한하신 일이오나 우리집 녀아는 귀공
 을 남조만밧고 잇다가 지금 어이함을잇가 하고 도로혀 한탄함을 마지아
 나하시늘왕비 이연훈 정분을 생각하고 왕에게 고하시 부비로 봉함을
 권히왕이 허락하고 초국에 득달하시 빅관이 진하후후 려일하시 성훈

하시 그즐기미 비홀터업더라 왕이 두왕비를거느리고 란영으로 후궁
 빈인을 봉하시다 고전감리는 네로브터 썩々흔일이라 다시 말 아니하시
 도응당호강

봉 황 덕 종

大正元年十一月二十日
 大正元年十一月廿八日
 大正三年二月一日
 大正三年二月五日

初版印刷
 初版發行
 再版印刷
 再版發行



定價金二十五錢

編輯兼發行者

京城北部大寺洞十一統二戶

南宮濬

印刷者

京城東部統內登子洞五統八戶

金聖杓

印刷所

京城中部鍾路鉢里洞九統十戶

誠文社

發行所

京城北部大寺洞十一統二戶

唯一書館

總發賣所

京城南部尙洞六十八統十二戶

博文書館

京城書館
 盧益煥
 金聖杓
 南宮濬

